

텔레그램이 뭐지? 안희정 쇼크에 관심 증폭

비서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도지사가 수행비서 김지은(여·33)씨에게 휴대전화 비밀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사용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Telegram)이 주목을 받고 있다.

텔레그램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카오톡 등을 대상으로 한 감청사건이 불거지면서 일부 국민이 이른바 '사이버 망명지'로 선택한 SNS이기도 하다.

텔레그램이 비밀과 연관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화제에 오르는 것은 문자 대화에 암호를 설정할 수 있는데, 자신이 받거나 보낸 메시지가 서버는 물론 휴대전화에 저장되지 않고 삭제까지 할 수 있는 등 보안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안희정 전 지사도 텔레그램 '비밀(채팅) 대화 기능'을 이용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여비서와 비밀 대화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지사가 애용한 텔레그램의 비밀채팅 기능은 휴대전화 텔레그램 연락처에 폰 사람을 지정한 뒤 비밀대화 시작만 누르면 가능할 정도로 이용법이 단순하다.

비밀대화 기능에는 자동삭제 기능도 있어 타이머를 설정하면 5초 등 정해진 간격으로 대화내용이 자동 삭제된다.

특히 비밀대화 기능은 따로 서버를 두지 않고 단단단(단말 장치에서 단말 장치로 통신) 암호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삭제된 내용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다.

요즘 검찰이나 경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의 자료를 복구하는 데 사용하는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 분석) 수사기법으로도 복구할 수 없다.

또한 비밀대화창에서 스크린샷 기능을 사용해 대화를 캡처할 경우엔 상대방 대화창에 '~님이 화면을 캡처했습니다'란 알림까지 전달되는 기능이 있어 상대방 몰래 대화내용을 저장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처럼 생활화 노출을 꺼리는 정치인, 보이스트핑 범죄단체 테러단체인 IS(이슬람국가) 등에서 텔레



2013년 개발 암호화 SNS 앱...독일에 서버 2014년 카톡 감청 논란에 '사이버 망명' 급증 보안 뛰어나 정·재계 애용...범죄단체 이용도 비밀 대화방 내용 사라지면 복원 불가능

그램을 이용한 이이다.

하지만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는 텔레그램도 비밀 대화방을 선택하지 않고, 일반 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눌 경우 그 기록이 남게 된다.

이번에 공개된 안 전 지사와 여비서의 대화 내용도 일반 대화방에서 이뤄진 것 중 일부다.

한편 암호화 SNS앱인 텔레그램은 지난 2013년 러시아의 니콜라이 두로프와 파벨

두로프 형제가 개발했다. 현재까지 구글(Google) Play 스토어에서 1억 회 이상 다운로드 됐으며, 280여만명이 리뷰를 남기고 전 세계 10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독일에 서버를 둔 텔레그램은 비밀대화 자동 삭제 기능 등으로 보안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국내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도 100만명 이상이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선 안드로이드의 경우 구글 Play 스토어 앱에서, 아이폰은 기본 앱인 App store를 통해 다운로드 설치할 수 있다.

앱을 실행시키고 시작하기를 누르면 국제 전화로 인증요청이 오는데, 이때 전화를 받으면 자동으로 끊기면서 인증 절차가 완료된다.

텔레그램도 카카오톡처럼 가입하면 휴대전화에 저장해둔 연락처를 통해 텔레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표시된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카카오톡의 경우 보통 1주일간 서버에 보관돼 메시지 복원할 수 있지만, 텔레그램처럼 해외에 서버를 두는 SNS의 경우 복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텔레그램은 메시지가 일단 삭제되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어린이집 소방안전 점검

8일 광주 북구청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직원들이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북구는 어린이집 137곳을 대상으로 소방·전기·가스안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보이스트핑 표적됐나

금감원 사칭 등 피해 속출

인출·전달책 잇따라 검거

광주에서 보이스트핑 조직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빼돌린 돈을 은행에서 인출해 조직책의 공모자로 전락하는 시민들이 잇따르고 있다. 보이스트핑에 속아 수천만 원을 빼앗기는 등 피해 사례도 크게 늘고 있다.

8일 광주북부경찰청은 보이스트핑 조직에 속아 피해자가 입급한 돈을 인출해 다른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황모(여·6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지난 7일 낮 12시40분께 광주 시 북구의 한 은행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3000여만원을 3차례에 걸쳐 인출해 30대로 추정되는 여성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경찰에서 "개인 신용도를 높이려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저축은행 직원의 말을 따랐을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황씨가 보이스트핑 조직원과 휴대전화로 수백차례 연락한 점을 토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현금 수거책을 추적 중이다.

광주동부경찰청도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 동안 광주·대구·대전·울산·포항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47회에 걸쳐 14억여 원 피해금을 인출해오부터 받아 보이스트핑 조직에 전달하고 성과금을 받은 정모(40)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 6일 오후 1시께 광주 동구에 사는 70대 여성이 경찰관을 사칭한 보이스트핑 조직의 전화에 속아 현금 3000만 원을 자택 세탁기에 넣어뒀다가 도난당했으면 같은 날 낮 12시25분께에는 광주 북구에서 70대 여성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같은 수법으로 3000만원을 잃었다.

경찰은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트핑 특성상 최근 광주지역이 표적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을 속여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고 피해금을 입금해주고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해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등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은행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이체·현금 인출을 요구하거나, 대출 안내 전화로 선입금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트핑"이라며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이나 대포전화를 양도·양수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고통 줄 의도도 음향 틀었다면 폭행"...장송곡 시위 유죄

2년 가까이 군부대와 행정기관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악성 소음을 일으킨 시위자 4명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도 음향을 이용했다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부장판사)은 8일 육군 35사단의 전복 임실군 이전을 반대해 부대와 군청 앞에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공포상해)로 기소된 임실군민 오모(6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2명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서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합리적 의사전달행위를 넘어섰고 고성능 확성기를 틀어 피해자들에게 급성 스트레스를 가한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35사단 임실이전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였던 이들은 부대 앞에서 44~74db(데시벨)로 장송곡을 틀고, 부대가 방음벽을 설치하자 확성기를 방음벽 위에 설치한 뒤 장송곡을 계속 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임실군청 앞에서 72~81db로 장송곡을 틀어 공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정음=박기성기자·전북취재본부장

SNS서 여성 행세하며 지적장애 남성에 수천만원 뜯어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지적장애인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속칭 '카드깡'이나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20대가 경찰서행.

○~8일 서울도봉경찰청에 따르면 김모(23)씨는 여성을 가장해 남성이 지적장애인 B씨에게 접근한 뒤 "같이 살려면 방을

언어야 하는데 대출을 알아보자"며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받아 A씨의 개인정보로 총 20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대출, 신용카드 결제 현금화(카드깡) 등으로 3900만원을 챙겼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남성이 김씨는 지적장애 3급인 B씨에게 '오빠', '여보', '동거하자' 등의 단어를 이용해 환심을 사"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고은·이윤희·오태석 작품 교과서에서 퇴출

교육부, 40건 모두 삭제키로

성추문에 휩싸인 고은 시인과 이윤희·오태석 연출가의 작품·인물소계가 교과서에서 모두 빠진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출판사와 집필진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중·고교 교과서에 수록된 이들의 작품과 인물소개 40건을 모두 수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검정교과서의 경우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국정교과서와 달리 출판사와 집필진에게 저작권이 있다.

교육부는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하는 와중에 교과서에 소개된 인물들이 성폭력 가해자로 거론되자 검정교과서협회에 공문을 보내 각 출판사가 이런 내용을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 입장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2개 출판사는 취합 마감일

인 전날까지 수정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날 입장을 바꿨다.

고은 시인의 경우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문학·역사부도 등의 교과서에서 시·수필을 비롯한 저작물 15건과 인물소개 11건이 실려 있다.

이윤희·오태석 연출가는 중학교 국어와 미술, 고교 문학 교과서에 작품 4편과 인물소개 10건이 실려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작품과 인물소계를 삭제하기로 한 출판사들의 경우 30여건은 이달, 나머지는 4~5월에 수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교과서 상시 수정·보완 시스템에 따라 출판사는 매달 초 수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승인한다.

교육부는 고교 2학년이 내년에 쓸 교과서의 경우 올해 9월에 검정을 마무리해 10월에 전신본이 나오기 때문에 각 출판사와 집필진이 최근의 사회적 논란을 반영할 시간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h2 style="text-align: center;">영광주택매매(급매)</h2> <p style="text-align: center;">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p> <p style="text-align: center;">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p> <p style="text-align: center;">틔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p> <p style="text-align: center;">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p> <p style="text-align: center;">주인직매 010-6670-9800</p>	<h2 style="text-align: center;">경매물건 (모텔, 무인텔)</h2> <p>*화순 도곡 천암리 객실 32개 (월 4,000만 수익예상) 감정:37억 최저:16억7천</p> <p>*담양 삼다리 토1,004평 건750평 감정:30억 최저:17억</p> <p>*화순 도곡면 토995평 건991평 감정:38억7천 최저:13억8천</p> <p style="text-align: center;">010-6670-9800 062)382-5500</p>	<h2 style="text-align: center;">경매교육 (3월초 개강)</h2> <p>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p> <p>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기초 + 실전경매+실전투자</p> <p>3) 경매 평생반 ▶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톱진행</p> <p style="text-align: center;">경매물건 추천</p> <p>①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상가) 주차완비 (실명시 100평) 감정가 6억7천 → 최저가 4억6천</p> <p>② 서구 치평동 해광한신 (24평) 감정가 1억5천8백 → 최저가 1억1천</p> <p>③ 서구 마북동 (주택)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1백</p> <p style="text-align: center;">[배우면서 컨설팅가능(경험자환영)] 사무실 프리 근무하실분</p> <p style="text-align: center;">010-6670-9800 062)382-5500</p>	<h2 style="text-align: center;">법률 경매 (주)대신경매</h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1) 남구 노대동 (상가건물) 어린이집 감정:4억8천7백 → 최저:3억4천1백</td> <td>7) 광산구 장덕동 (근린주택) 감정 13억1천9백 → 최저 13억1천6백</td> </tr> <tr> <td>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효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가 1억4천4백 → 최저가 8천</td> <td>8) 순천시 조례동 (목욕탕) 감정 39억2천5백 → 최저 27억4천7백</td> </tr> <tr> <td>3)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 30억2천4백 → 최저 16억9천</td> <td>9) 화순군 도곡면 천암 (속박시설) 감정 38억7천 → 최저 13억8천</td> </tr> <tr> <td>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9억 3천 → 최저3억 3천</td> <td>10)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근린시설) 감정 7억2천2백 → 최저 3억2천3백</td> </tr> <tr> <td>5) 광산구 수완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td> <td>11) 나주시 성북동 (근린주택) 토지:439평 감정:32억6천 → 최저:14억6천</td> </tr> <tr> <td>6) 광산구 신창동 (원룸) 감정:3억8천2백 → 최저:3억8천2백</td> <td>12)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전원주택) 감정:3억6백 → 최저:2억1천4백</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A.P.T · 주택 · 공장 · 토지 (기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td> <td>⑥ 광산구 용동(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6억7천</td> </tr> <tr> <td>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5천3백 → 최저 1억7백</td> <td>⑦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td> </tr> <tr> <td>③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아파트 (45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td> <td>⑧ 광산구 삼거동 (공장)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td> </tr> <tr> <td>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td> <td>⑨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td> </tr> <tr> <td>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td> <td>⑩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010-6670-9800 062)382-5500</p>	1) 남구 노대동 (상가건물) 어린이집 감정:4억8천7백 → 최저:3억4천1백	7) 광산구 장덕동 (근린주택) 감정 13억1천9백 → 최저 13억1천6백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효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가 1억4천4백 → 최저가 8천	8) 순천시 조례동 (목욕탕) 감정 39억2천5백 → 최저 27억4천7백	3)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 30억2천4백 → 최저 16억9천	9) 화순군 도곡면 천암 (속박시설) 감정 38억7천 → 최저 13억8천	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9억 3천 → 최저3억 3천	10)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근린시설) 감정 7억2천2백 → 최저 3억2천3백	5) 광산구 수완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11) 나주시 성북동 (근린주택) 토지:439평 감정:32억6천 → 최저:14억6천	6) 광산구 신창동 (원룸) 감정:3억8천2백 → 최저:3억8천2백	12)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전원주택) 감정:3억6백 → 최저:2억1천4백	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	⑥ 광산구 용동(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6억7천	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5천3백 → 최저 1억7백	⑦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	③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아파트 (45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⑧ 광산구 삼거동 (공장)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⑨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⑩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
1) 남구 노대동 (상가건물) 어린이집 감정:4억8천7백 → 최저:3억4천1백	7) 광산구 장덕동 (근린주택) 감정 13억1천9백 → 최저 13억1천6백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효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가 1억4천4백 → 최저가 8천	8) 순천시 조례동 (목욕탕) 감정 39억2천5백 → 최저 27억4천7백																								
3)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감정 30억2천4백 → 최저 16억9천	9) 화순군 도곡면 천암 (속박시설) 감정 38억7천 → 최저 13억8천																								
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9억 3천 → 최저3억 3천	10) 구례군 산동면 대평리 (근린시설) 감정 7억2천2백 → 최저 3억2천3백																								
5) 광산구 수완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11) 나주시 성북동 (근린주택) 토지:439평 감정:32억6천 → 최저:14억6천																								
6) 광산구 신창동 (원룸) 감정:3억8천2백 → 최저:3억8천2백	12)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전원주택) 감정:3억6백 → 최저:2억1천4백																								
① 서구 치평동 금호타운 아파트 (31평) 감정 2억2천4백 → 최저 1억5천6백	⑥ 광산구 용동(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6억7천																								
② 서구 내방동 내방주공아파트(24평) 감정 1억5천3백 → 최저 1억7백	⑦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																								
③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아파트 (45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⑧ 광산구 삼거동 (공장)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④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아파트(2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⑨ 목포시 산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⑤ 광산구 소촌동 스위트밸리 (34평) 감정 1억8천 → 최저 1억2천6백	⑩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																								